

‘재미와 교육’ 두 마리 토끼 잡은 독서운동들

글_허선

미국에서 시행되는 독서 캠페인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책 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재미있는가를 알리고 어린 나이에 글을 깨우치도록 도움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출판계, 학교, 서점 등 책과 관련된 산업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각층의 저명인사, 일반 독자의 참여와 더불어 기업의 참여로 독서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전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Get Caught Reading’과 부모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Reading by 9’ 그리고 독서 장려 프로그램 ‘Book it’은 미국의 성공적 독서 캠페인으로 꼽힌다.

✦ Get Caught Reading

이 캠페인은 1999년부터 미국 출판협회 지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글과 친해지는 기회를 부여하자’라는 취지로 출범되었다. 전 하원의원이자 미국 출판협회 회장인 팻 슈로이더는 출판계가 앞장서서 독서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알리는 큰 기회라 여기고 Get Caught Reading을 고안해 냈다고 한다. 이 운동은 서점, 도서관, 학교는 물론 일반 독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Get Caught Reading에서 발행하는 포스터의 인기와 더불어 독서 프로그램의 운영을 꼽을 수 있다.

먼저 Get Caught Reading의 포스터는 정치인은 물론 연예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등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과 캐릭터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 인기가 높다. 그래서 미국의 학교 도서관, 서점에 가면 Get Caught Reading에서 발행된 포스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 포스터는 운송비만 지불하면 무료로 제공되는데 원하는 인물이나 캐릭터의 포스터를 최대 12개까지 고를 수 있다.

최근 미국 대통령 부인 로라 부시 여사가 모델로 등장하여 포스터가 매진되기도 했다. 이 밖에 운동선수, 가수, 배우 등 연예인들과 정치인의 참여도 활발하다. 특히 미국 하원의원들은 매년 자신이 좋아하는 책과 함께 포스터를 찍고 자신의 지

역구의 독서프로그램 지원에 나서기도 한다. 또한 잡지나 신문의 홍보에 힘입어 매년 더 많은 도서관, 서점, 학교들이 독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Get Caught Reading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다. 독서 프로그램은 Get Caught Reading 로고를 이용하여 저자 초대, 뉴스레터 발송, 독서 그룹 만들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많은 독자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 Reading by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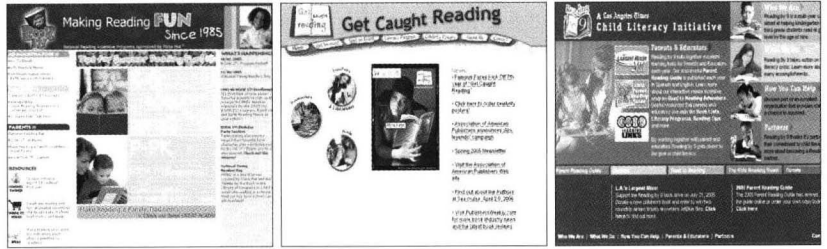
이 캠페인은 아직 글을 깨우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9살까지 글을 깨우치자’라는 모토로 많은 후원과 더불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에 의하면 보통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읽는 것을 배우고 그 이후로는 배우는 것을 읽게 된다고 한다. 이때까지 읽는 것을 배우지 못한 어린이는 자연스럽게 책 읽는 것에 흥미를 잃고 학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Reading by 9는 9살까지 책을 읽는 것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신문, 방송 등의 언론사와 후원사 그리고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언론사의 후원은 신문지면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신문사 <볼티모아 선>지는 매주 일요일마다 메릴랜드 섹션에 ‘Reading by 9’ 관련 뉴스를, 가족 섹션에는 부모들을 위해 자녀들이 책을 읽는 데 도움을 주는 조언과 자료를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아동 섹션에서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을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다.

또한 ‘Reading by 9’는 이 캠페인이 원활히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 기부제, 아이들이 책을 못 읽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문맹 부모 글 깨우쳐주기, 교육 관련자를 위한 재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 촉진 프로그램과 행사 등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Book it

1985년 아동들에게 더 많은 책을 접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고자 시작된 피자헛 Book it은 미국에서 가장 큰 독서 촉진



미국의 독서운동단체 홈페이지. (왼쪽부터)

Get Caught Reading(www.getcaughtreading.org)

Reading by 9(www.latime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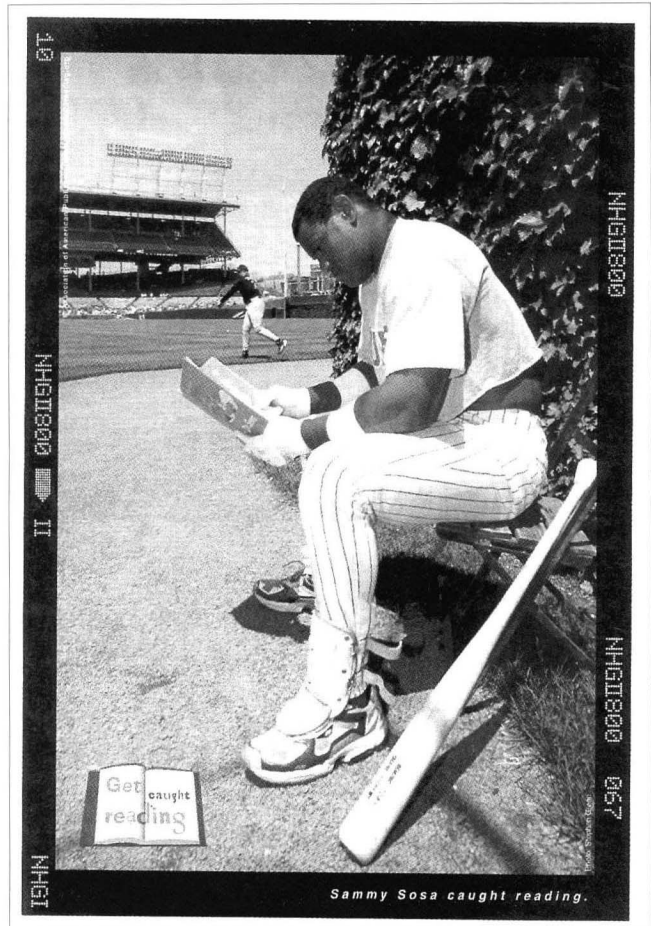
Book it(www.bookitprogram.com)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피자헛과 교육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이 프로그램은 4~8세, 9~12세, 청소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책 읽는 것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취학 전 아동은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홈스쿨 등 학교 독서 프로그램에도 적용되고 있다.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시상과 행사로 독서하는 재미를 더해 준다. 매달 각각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책을 읽을 것인가를 목표로 삼은 뒤,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피자헛 회사로부터 무료 식사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매년 생일파티 콘테스트가 개최되는데 선생님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열고 싶은 생일 파티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여기에 당첨되면 해당학교 도서관에 1,000달러 가량의 도서구입비와 50권 가량의 도서를 기증한다. 또한 해당 교사에게 500달러를 지급하고 각각 학생들은 'Book it 모음집'을 받을 수 있다. 최고상을 받은 해당 학교는 Book it 생일 파티도 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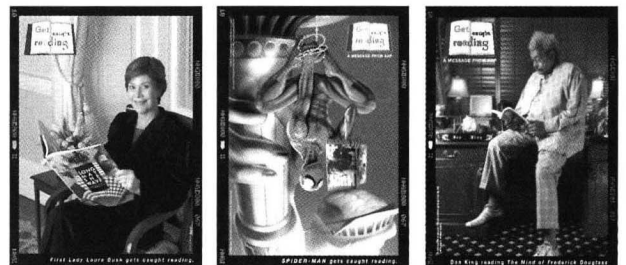
✦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참여 필요

미국의 독서 프로그램은 단순히 책읽기를 장려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가족, 학교, 지역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흥미와 재미 그리고 교육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 우리의 독서 장려 프로그램은 독서를 좀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흥미 유발이나 동기 부여에 집중하기보다 공부를 잘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독서가 재미없고 지겨운 일이라는 부담감보다는 책을 읽으니 재미도 있고, 칭찬도 받아서 즐거운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도록 많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이 글을 쓴 허선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출판물 전공했고 2003년 미국에서 PMA Publishing university 과정을 수료했다. 논문으로 <도서 및 저작권의 수출입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평화출판사와 진선출판사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출판마케팅협회 회원으로 서울 삼청동길 입구에서 갤러리 진선 www.galleryjinsun.com을 운영하고 있다.



Get Caught Reading의 포스터는 정치인은 물론 연예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등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과 캐릭터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 인기가 높다. 책을 읽고 있는 미국프로야구 선수 세미 소사.



미국 대통령 부인 로라 부시 여사를 비롯해 유명인이 모델로 등장한 Get Caught Reading 포스터들.